중앙일보

# "대법원장 아들부부 재테크하러 공관 입주했나"…대법 국감 논란

[중앙일보] 입력 2019.10.02 14:48 수정 2019.10.02 15:09

김명수 대법원장[연합뉴스]

김명수 대법원장 아들 부부의 공관 '무상거주' 의혹이 2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.

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서 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퇴장하자 "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대법원장 공관에 거주하며 재테크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"며 김 대법원장의 퇴장에 반발했다.

그는 "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의 재산 신고 내역 등을 요구했는데 전혀 응답이 없다"며 김 대법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.

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"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1년 3개월여 공관에서 김 대법원장 부부와 함께 동거한 것으로 인정했다"고 밝혔다. 정 의원은 아들 부부는 문제가 제기되자 독립했지만, 국비가 투입된 시설에 대법원장 아들 내외가 거주했다는 점은 세금 낭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.

장제원 한국당 의원도 관련 문제를 언급했다. 장 의원은 아들 부부가 공관에 들어와 거주한 것이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배경일 수 있다며 "리모델링 예산집행 내역도 함께 제출해달라"고 요구했다.

김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인 김한철 전주지법 판사와 강연수 변호사는 2018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대법원장 공관에서 거주했다.

일각에서는 김 판사 부부가 지난 2017년 9월 서울 신반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김 대법원장 부부가 살고 있던 공관에 들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. 김 판사 부부가 당첨된 아파트 분양가는 13억원으로, 2020년 4월 입주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.

이에 김 대법원장은 공식적인 해명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, 법원 관계자 등은 대법원장 가족이 공관에 함께 거주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.

이민정 기자 lee.minjung2@joongang.co.kr